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3>

日 요코하마 도시디자인과 창조도시 정책

요코하마 시는 지난 1971년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해 도시 이미지의 변신을 꾀했고, 지난 2004년에는 창조도시 슬로건을 내걸어 다른 도시 지자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공식적으로 요코하마 시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도시만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7 곳에 이른다. 어느새 대도시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 및 창조도시 정책을 들여다봤다.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신개발지 미나토미라이 21지구의 야경. 요코하마 시는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랜드마크플라자~퀸스스퀘어~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등 초고층 건물들을 바다 쪽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구도로 들어서도록 유도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공공디자인 도시를 바꾸다



요코하마 시에서 70층으로 최고층 건물인 랜드마크플라자의 1층은 과거 도크(dock)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요코하마=글·사진 윤현석 기자

일본 가나자와 현 요코하마시에는 도시의 과거 흔적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1859년 개항 이후 매립을 통해 도시를 형성해가고 있는 요코하마는 150년 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과 구조물 등을 유지하면서도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야간경관을 곳곳에 절묘하게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이 정박할 때 줄을 매어놓는 볼라드가 여전히 보도 한 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높이 70층의 초고층빌딩인 '랜드마크플라자'의 1층 공간에는 선박들이 정박과 수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도크(dock)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이제는 문화복합시설로 유명한진 아카렌카(빨간벽돌) 창고는 선박 화물창고였으며, 도쿄예술대학원 영상연구과가 쓰고 있는 건물은 1929년 지어진 옛 은행이었다.

이 밖에도 요코하마의 유명한 산책로인 바사미치(馬車道)는 항구와 그 주변 공장이나 창고, 회사 등을 이어주는 단선철로를 용도 변경해 새롭게 이미지화함으로써 도시 명물로 자리 잡았다. 이 바사미치의 끝에 민간 호텔이 들어서면서 경치가 가로막힐 위기에 처하자 요코하마 시는 민간업체와 협상을 통해 호텔 건물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자칫 사라질 뻔했던 도시 내 뛰어난 경관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되돌려주는 데 성공했다.

요코하마의 중심지에서는 간판을 찾아보기 어렵다. 3~4층에서 수십층에 이르는 건물의 각 층마다 매달려있어야 할 간판 대신 출입구에 얽혀 이름만 간단히 표기된 이정표만 있을 뿐이다.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이라고는 맨 꼭대기의 건물 이름이 고작이다.

또 1988년 매립을 통해 조성이 완료된 미나토미라이 21지구의

모든 건물은 바다를 향해서 점차 낮아지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랜드마크플라자~퀸스스퀘어~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로 이어지는 이들 건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체감, 조화로움, 화려함 등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 같은 도시 디자인은 1971년 발족한 요코하마 시청 내 도시디자인실이 이끌었다. 일본 수도 도쿄의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배후도시 성격이 강했던 요코하마가 '요코하마다운

이 도시 디자인 정책의 이후 성과와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창조도시 정책'이다. 도쿄의 영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등 신개발지에 대한 민관의 집중투자는 결국 구도심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구도심 재생의 도구로 '문화예술'을 선택한 것이다. 또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외형만을 강조하는 도시 디자인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부족하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했다.

요코하마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시정 목표로, 예술가의 창작·발표·거주공간 조성,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한 대학 등의 유치,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도심 내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며 제공하는 '뱅크아트(BankART) 1929', 대표적인 가로 오픈 카페 설치, 유흥가 내 예술문화공동체 구성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요코하마에도 한계는 있었다. 정책과 사업이 관광객이 찾는 요코하마 항만 주변에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에 대한 재생 및 정비 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창조도시 관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점차 감소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코하마 시의 창조도시사업 추진비는 지난해 61억7992만4000원에서 올해 44억625만4000원이 줄어든 17억7368만엔만이 반영됐다.

요코하마 시 나카하라 마사하루(仲原正治·61)씨는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 요코하마"라며 "가장 어려운 것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해 관련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는 언제나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hadok@kwangju.co.kr

1971부터 디자인 전담부서 운영

초고층 건물 사이 근대 건축물

구도심 재생 문화예술에 집중

개성 있는 도시공간'을 목표로 내걸면서 독자적인 도시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행자 편의 증대 및 가로경관 디자인, 역사적 건축물의 리프트 업(상향 조명) 등 야간경관사업, 역사적 건축물 매입 등 경관 보존 등이 그 골격이 됐다. 이 정책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각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요코하마 따라하기' 붐이 일었다.

요코하마 시 창조도시사업본부 창조도시추진과 모리 다카시(森崎·50)씨는 "당시 요코하마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며 "외형만을 강조했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변신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슬레이트 지붕’ 애물단지 전남주택 ‘석면공포’

공정 직영 공장 직거래

주택 개·보수

인테리어

APT, 주택 리모델링

협력업체 및 영업사원 구함

색상별 칼라강판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S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단 하루면 시공완료

본사 및 공장주소: 광주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062-373-6548 · 6549 010-8608-6548

닥터손 로벤케어

손영호 박사의 로벤테라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샵입니다.

이런분께 권합니다!

- ✓ 오십견
- ✓ 엘 보
- ✓ 관절염
- ✓ 디스크
- ✓ 여드름
- ✓ 간질·우울증
- ✓ CT, MRI 이상없는데 고통을 느끼시는 분
- ✓ 방문하는 고객님께 감기는 무료관리(1시간 후 즉시 효과)

손영호 의학박사가 개발한 로벤테라피란?

여러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천연성분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생한 제3세대 아로마테라피입니다. 기존의 아로마테라피와는 효과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로벤테라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증상에 오일을 피부에 발라 10여분동안 마사지 하여 통증이나 각종 증상을 없애는 기적의 자연제품으로 현재 전국 많은 병원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속는셈치고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문 환영 전화예약하시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오일을 피부에 발라 20분 맞사지/놀랍고 기적적인 효과/확신이 안가신 분/무료상담, 방문환영

처음엔 의심하던 고객님이 1회관리후 통증이 없어지는 탁월한 변화를 체험하신후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로벤케어의 모든 관리는 책임제입니다”

책임제란? 효과없을시 돈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개설문의 환영 모집지역: 광주,전남북지역 소자본투자/안정된수익

※ 위의 질병들을 가장 빨리 관리함에 있어서 로벤은 이미 세계최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 신동아 9월호)

TEL. 062)376-5557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7-3 라인대주 APT 정문앞 2층201호 (지하철 상무역 4번 출구)